

# 3중 악재 덮쳐 '치킨플레이션' 우려 현실화

## 조류인플루엔자 장기화에 고환율·사료비까지 올라 살처분에 도·소매가 상승...자영업자·소비자 '한숨'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치킨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환율·사료비 상승 등 악재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장기화 영향 등으로 도축 마릿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월 축산유통정보 다룸(KAPE)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광주지역 육계 소매가격은 kg당 각각 5895원으로, 1년 전 같은 날(4914원)보다 981원(19.9%)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12.3%(5904원

→6632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문제는 닭 소비가 늘어나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과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닭고기 가격 상승세가 외식 물가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종(7545원), 인천(7300원), 제주(7136원), 울산(7091원) 등 7000원을 넘긴 지역도 많았다. 최고가를 기록한 부산은 78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닭고기 가격 오름세는 육계 도

축 마릿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이례적으로 올해까지 확산하는 과정에서 육계 농가들이 적잖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동절기 AI 여파로 육용 종계(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닭) 살처분 규모가 44만마리에 달하며 앞선 동절기(12만마리)의 3.7배로 전체 종계 약 5%가 줄어들어 수치가. 또 올해 1~3월 살처분된 육용 종계는 128만마리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4월 육계 도축 마릿수를 6071만~6196만마리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2.3~0.3% 평년 대비 4.2~2.3% 줄어든 수치다.

오는 5월에는 육계 도축 마릿수가 6163만~6294만마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이는 전년 대비 5.6~3.6%, 평년 대비 8.0~6.0% 줄어드는 규모다. 닭고기 가격 인상의 여파는 소비자들도 직접 느끼고 있다. 때문에 당장 성수기 삼계탕 1인분 가격이 2만원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서비스인 참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광주지역의 삼계탕 가격은 1만6800~1만7200원이었다. 올해는 1월 기준으로 이미 1만7400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치킨 업계에서도 닭고기 수급난과 맞물려 가격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배달비를 포함한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원이 넘는 곳도 등장했다. 50대 주부 A씨는 "최근 가족들이 좋아하는 백숙을 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닭고기를 구매하려다 가격이 부담돼 발길을 돌렸다"며 "치킨도 배달비 포함 2~3만원에 육박하면서 예전에는 아식으로 자주 먹던 치킨도 삼사리 주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고 전했다. 닭을 이용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서구에서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해보다 닭고기 단가가 1000

원 이상 올랐다" "1000원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가가 오르고 있고, 여름이 되면 가격이 더 오르고 복날엔 최고점을 찍는데 지금도 가격이 올라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석유류 가격 폭등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닭고기, 쌀, 고등어 등 가격 강세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물가관리 총력을 나섰다. 최근 가족여행 발병 등으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닭고기에 대한 공급량 확대 방안과 함께 최대 40% 할인행사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01404@gwangnam.co.kr



금호타이어가 지난 3일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공식 파트너십 연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금호타이어, KIA 타이거즈와 공식 파트너십 연장

### 전 경기 유니폼 상의 우측 흉장에 금호타이어 로고 노출

금호타이어가 지난 3일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공식 파트너십 연장 조인식을 갖고 2028시즌까지 3년간 동행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윤민석 상무와 KIA 타이거즈 심재학 단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IA 타이거즈는 최대 KBO 한국시리즈 우승팀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 명문 구단이다. 특히 양현종, 나성범, 김도영, 김선빈 등 해외파 및 국가대표팀 출신 선수들이 다수 활약하고 있으며, 탄탄한 전력과 전국적인 팬층을 기반으로 KBO 리그 흥행을 이끄는 핵심 구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은 올해 정규시즌 모든 경기에서 상의 우측 흉장에 금호타이어 로고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게 된다. 또 KIA 타이거즈 홈(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및 원정 144개 경기를 비롯해 구단 홈페이지 및 유튜브, 입장권, 팬북 등 다양한 경로로 관중들을 만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외의 다양한 스포츠 대회 및 구단 후원을 통해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특히 2022년 4년 만에 KIA 타이거즈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KIA 타이거즈의 두터운 팬층과 높은 관심도를 기반으로 브랜드 노출 효과를 극대화

했다. 이번 파트너십 연장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상무는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최고 명문 구단인 KIA 타이거즈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국내외의 다양한 스포츠 대회 및 구단 후원을 통해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스포츠 구단 및 대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가격 할인'...현대차 '이지 스타트' 시행 최대 300만원 혜택...구매 부담 완화·원료비 지원 확대

현대자동차는 고객들의 차량 구매와 보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낮춘 '현대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일부 차량에만 적용됐던 구매 부담 완화 및 연료비 지원 혜택을 주요 인기 차종으로 확대·강화했다. 현대차는 우선 구매 지원 혜택으로 '이지 스타트 특화 조건'을 적용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택페와 쏘나타는 최대 300만원, 아이오닉6 및 코나 일렉트릭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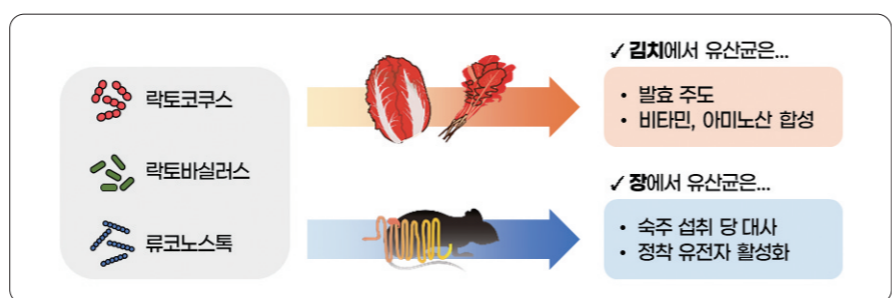
대 200만원, 아이오닉5 최대 150만원, 포터 LPDi 최대 100만원 할인이 제공된다. 또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넥쏘를 대상으로 한 '현대 EV 부담 Down' 프로모션을 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차량별 연료비 지원 프로그램은 쏘나타, 신택페, 포터 LPDi를 대상으로 보다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차량별 연료비 지원 할부는 차량의 잔존가치를 미리 보장받아 해당 금액만큼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

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에는 차량 반납을 통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한 할부 금융 상품이다. 신택페와 쏘나타의 경우 60개월 할부 잔가율을 3~10%p 상향했고, 포터 LPDi는 할부기간 60개월을 신설해 고객들이 월 20만~30만원대의 낮은 월납입금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차종별 월납입금은 신택페가 기존 대비 약 1만원 인하된 33만원대, 쏘나타는 기존 대비 약 4만원 인하된 27만원대, 포터 LPDi는 24만원대, 아이오닉5가 21만원대, 아이오닉6는 24만원대, 코나 일렉트릭은 21만원대, 넥쏘는 28만원대로 고객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췄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김치 유산균, 장내서 환경 따라 유전자 발현 바뀐다

### 식품→장내 이동 과정 적응 원리 세계김치연구소, 세계 최초 규명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유산균이 식품 환경에서 인체 장내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따라 유전자 발현을 재구성하며 기능을 전환하는 적응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치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미생물로 알려져 왔지만, 산성 발효 환경에서 생존하던 유산균이 장내로 이동한 이후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변화시키며 적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은 그동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미생물의 단순한 '이동'을 넘어, 환경 변화에 따라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전환되는 '기능 재설계 과정'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연구에는 세계김치연구소 지능형발효연구단의 김연비·김유진 학생연구원과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원태웅 단장과 오영준 박사, 서울대학교 이도엽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팀은 외부 미생물을 완전히 배제한 '무균 김치-무균 마우스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 동일한 김치 유산균을 김치 환경과 장내 환경에 각각 적용해 유전자 발현 변화를 정밀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김치 유산균은 환경 변화에 따

라 필요한 유전자만을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전자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생존 전략과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태웅 단장은 "김치 유산균이 장내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스스로를 재구성하며 생존한다는 점은 김치가 살아있는 고기능성 식품임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라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기능성 유산균 개발의 정밀도를 높이고, 김치 산업의 과학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훈 기자 photo25@

DH AUTOLEAD

## 미래가 준비된 기업 매 오토리드

### R&D 통한 기술력 확보

**DH 오토리드 신기술 / 신공법 / 신소재 선행개발 계획**

신기술	2018	2019	2020~
· HOD(Hands off Defect) 시스템 · 스티어링 휠 디스플레이 시스템 · 베젤부 히팅 시스템 · 템스타어링 휠 Body Run 제어 강화 · 워드란 컨트롤러 히팅 스티어링 휠			32건
· 66인 허브 3인 캘iper 구조 · 허브리스 아마주어 · 경계형 리얼카본 베젤 · Wood 셀공법 / UV코팅 · 2톤 가죽 + 히팅 스티어링 휠			17건
· 만성 발열 Heated 시스템 · Bio 친화적 Heated 시스템 · Metallic 베젤 · 열선 패드 (EPDM)			14건

### 매 오토리드 시장점유율

국내 시장점유율 (2023년 생산량 기준)

**62%**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벌 연간 생산량 대비 DH 오토리드 생산량

연도	2020	2021	2022	2023
점유율	46.0%	43.0%	42.0%	42.0%

자료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그룹, 아우토리드

### 주요제품 및 세부현황

Amature ASSY 스티어링 휠의 뼈대	LWD Cover 조립부 커버
천연가죽/인조가죽 고급성향상	D/Damper 고유진동수 확보
Switch 운전자 편의사항	Haptic Motor ASSY ADAS 알림 기능
Bezel 리모컨 가이드	Heating PAD 열선 지형용 나타냄

### 생산기지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대한민국	슬로바키아	베트남	대국	멕시코	중국
본사(관주)	슬로바키아 불류장고 구족 2020년 하반기(절리나)	베트남 생산공장 설립 2021년 상반기(행화성)	대국 생산공장 설립 2023년 상반기(리우)	멕시코 생산공장 확장 설립 2023년 상반기(몬테레이)	중국 생산공장 설립 2025년 상반기(백경, 연성)